

400년 지켜온 ‘보성 영광정씨 고택’ 국가유산 됐다

국가유산청, 국가민속문화유산 공식지정
‘영구하해’ 명당·조선-근대 생활사 간직
독특한 건축미·원림 등 보존 가치 ‘탁월’

보성군이 품고 있는 400년 역사의 삶의 터전인 ‘봉강리 영광정씨 고택’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승격됐다.

23일 보성군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 18일 ‘보성 봉강리 영광정씨 고택’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공식 지정했다.

이는 조선 후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역사와 민속문화를 온전히 간직해 온 점이 종합적으로 인정된 결과다.

이 고택은 영광정씨 정순일(1609-?) 선생이 봉강리에 터를 잡은 이후 400여년간 대를 이어

지켜온 유서 깊은 공간으로, 단순한 주거지를 넘어 일제강점기 항일운동과 근대 민족운동, 해방 이후의 격변하는 사회사적 사건들이 겹겹이 쌓인 ‘살아있는 역사 현장’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곳은 한국 풍수지리 전통에서 길지로 꼽히는 ‘영구하해(靈龜下海·신령스러운 거북이 바다로 내려가는 형국)’의 거북 머리 부분에 해당한다.

현존인 정도삼이 자신의 호를 ‘구정(龜亭)’이라 짓고 고택을 ‘거북정’이라 칭한 것은 가문의 정체성과 자연 경관을 일치시키려 했던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건축학적 가치 또한 남다르다. 안채와 사랑채가 마당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배치된 ‘이(二)자형’ 구조는 호남 민가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특히 ‘요(凹)자형’으로 구성된 안채는 보성 지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보성 봉강리 영광정씨 고택 전경 모습.

〈보성군 제공〉

역만의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뒷면에 사적 공간과 수납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당시의 생활

방식과 사회적 맥락을 잘 담아내고 있다. 고택 주변에는 역사적 의미를 더하는 부속 건

장성군 올해 최고 시책은?...어르신 택시 바우처 ‘엄지척’

郡, ‘성장장성 우수정책’ 10건 발표

年14만4천원 지급...교통복지 실현

‘24시 돌봄 어린이집 운영’ 등 포함

장성군이 올 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 ‘성장장성 우수정책’ 10건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23일 장성군에 따르면 이번 우수정책은 각 부서에서 추천한 36개 사업 중 부서장 설문문을 통해 15건을 선별한 뒤, 군민과 공직자 1천800여명이 참여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정책으로는 민선 8기 제감형 복지 사업인 ‘어르신 택시 바우처’가 꼽혔다.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14만4천원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이 사업은 병원 이동 등이 잦은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교통복지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육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 ‘24시 돌봄 어린이집 운영’도 우수 정책에 이름을 올렸다. 생후 6개월부터 7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간당 1천원의 저렴한 비용에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들의 큰 지지를 얻었다.

대규모 행사 성과도 두드러졌다. 장성군 최초



김한중 장성군수는 최근 우수정책 중 하나인 택시 바우처 사업 현장을 방문해 택시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로 전남제전과 전남장애인체전을 유치해 3만여 명의 방문객을 불러 모았으며, 전남제전 종합 4위 등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며 군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 밖에도 ▲장성군 캐리터 ‘성장이와 장성이’ 개발 ▲황룡산립북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선정 ▲건동광산 부지 데이터센터 조성 협약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 ▲인공지능(AI) 비서 도입 ▲장성나노기술 제2일반산단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로컬푸드 농가 레스토랑 ‘장성한상’ 운영 등이 10대 우수정책에 포함됐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군민과 공직자가 직접 뽑은 이번 우수정책들은 지역 변화에 대한 군민들의 염원이 담긴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구성원 모두가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성=김문태 기자

정광현 순천시의원 “동일 전세사기 수사 나서야”

제291회 제2차 정례회서 촉구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함·매곡·삼산·저천·중앙·사진)이 최근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최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과거 전세 사기가 발생했던 한 아파트에서 20~30대 청년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또 다시 피해가 발생했다”며 “동일 임대인·아파트, 유사한 계약 구조가 반복된 만큼 순경경찰



서는 물론 도경 차원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피해자 대부분이 같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계약했고, 피해 상황 인지 후에도 해당 임대인 명의 주택이 전세 매물로 소개되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다”며 “전남도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안을 ‘동일 임대인 사

건’으로 공식 인정하고,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그동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수차례 발의했음에도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추가 피해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각 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즉각적인 행정 개입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순천=양홍렬 기자

담양군, 2026년 주요업무 보고회 추진

담양군은 23일 “전날 군정 송강정실에서 정철원 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경마공원 유치 ▲국제명상센터 건립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 ▲향촌복지 서비스 확대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과제들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정 군수는 지난 7월 호우 피해 지역인 가사천·어사천의 개선 복구와 담양읍·고서면 일원의 침수 예방 사업 등 군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정 군수는 “내년은 군민들이 일상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모든 공직자가 ‘월담’이 돼 ‘더 큰 담양’을 완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고흥군, 전남도 농정평가 4년 연속 ‘우수’

식량·원에 ‘대상’ 등 3관왕 쾌거

3년 연속 수출 1억달러 달성 호평

고흥군이 전남도가 주관한 ‘2025년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한 ‘농업 강군’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

23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군은 농정 전반에 걸친 혁신적인 성과를 인정받아 종합평가 우수상을 비롯해 총 3개 부문에서 표창장을 휩쓰는 쾌거를 거뒀다.

〈사진〉

전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는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식량·원에 ▲농수산식품 수출 등 농정 전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 성과와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제도다.

고흥군은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한 선제적 인력 수급 정책과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한 농업 구조 개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세부 부문별 성과가 두드러졌다.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 등의 공로로 ‘식량·원에 업무 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했으며, ‘농수산식품 수출 우수 시군 평가’에서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실제로 고흥군은 전국 군 단위 수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3년 연속 수출 1억달러 달성이

라는 압도적인 성과를 통해 선도 농업 도시로서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생산은 농민이, 판매는 행정이 책임진다’는 민선 8기 농정 철학 아래 국내외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주력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4년 연속 수상은 농업인과 행정이 한마음으로 이뤄낸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미래 농업 육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주성혁 기자

